

#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와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강민정, 이명순<sup>†</sup>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 Sense of community and community participation for health promotion in urban areas of Korea

Min-Jung Kang, Myoung-Soon Lee<sup>†</sup>

Department of Social and Preventive Medicine,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Objectives:**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association of sense of community with community participation for health promotion in urban areas of Korea. **Methods:** We analyzed data from 'Community Capacity for Healthy Gangdong Communités' Survey' in 2007. The survey was based on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hich were distributed to 1,800 community residents over the age of nineteen in five administrative communities of Gangdong-gu, Seoul, in Korea by using proportionate probability sampling method. We measured 'Sense of community' with four indicators including 'Good neighborhoods', 'Perceived possibility of cooperation', 'Pride of community' and 'Possibility of development' by using 5-point Likert scales. Community participation was measured with the experience rate or the extent of participation by 5-point Likert scales in seven community actions or activities including voting, community program planning, social actions, etc. We examined the association of sense of community with community participation by using regression analyses. **Results:** This study has shown that sense of community was associated with and made positive impacts on community participation in diverse community actions or activities in urban communities. **Conclusions:** For promoting community health in urban areas, we can increase community participation more effectively with the efforts of enhancing sense of community.

**Key words:** sense of community, community participation, community action, urban area, health promotion

### I. 서론

지방분권 및 지방화 시대에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및 건강형평성은 그 지역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이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우리나라 광역시·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형평성 달성은 정부 및 관련 전문분야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활동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 및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건강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및 활동의 중

요성에 대해서는 세계수준의 합의를 통해서 채택된 오타와헌장 및 방콕헌장을 비롯한 여러 문헌 등에서 강조되고 있다(Lovell, Keams, and Rosenberg, 2011; Foster-Fishman, Cantillon, and Van Egeren, 2007; WHO, 2005; Labonte, Georgia, Chad, et al., 2002; WHO, 1986). 오타와헌장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활동영역을 개인 수준에서 사회정책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 수준에서 제시하면서 지역사회 수준에서 건강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 강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고(WHO, 1986), 2005년 채택된 방콕헌장에서는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 과정 속에서 세계가 직면한 새로운 건강결정요인 및 건강과제를 해결하기

Corresponding author : Myoung-Soon Lee

2066, Seobu-ro, Jangan-gu, Suwon-si, Gyeonggi-do, Korea

주소: (1641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Tel: +82-31-299-6281, Fax: +82-31-299-6299, E-mail: msnlee@skku.edu

• Received: November 26, 2016

• Revised: December 14, 2016

• Accepted: December 15, 2016

위해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역할 및 책임이 한층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WHO, 2005).

건강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및 활동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단순히 사업 혹은 서비스 수혜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건강증진사업 혹은 프로그램의 기획, 수행 및 평가 등에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Lee et al., 2008; Lee, Kang, Cho, and Choi, 2011). 이러한 지역사회 주민 참여 혹은 건강증진활동 강화는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주도적인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새로운 건강문제(health issues) 등에 대처하는 지역사회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Jeong, Park, et al., 2012; Macellen-Wright Anderson, Barber, et al., 2007; Labonte et al., 2002; Hawe, King, Noort, et al., 2000; Laverack and Labonte, 2000). 또한 시민들의 지역사회 다양한 조직 및 기관 활동에의 참여는 사회의 물리적 환경 개선, 서비스 향상, 범죄 예방 및 여러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다(Chavis and Wandersman, 1990, Recitation).

지역사회 참여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애정을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개념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Sense of Community)이다.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은 소속감과 유사한 개념으로(Anderson, 2010),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어 왔으나 McMillan과 Chavis(1986)가 처음으로 이론적 체계를 토대로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많은 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다(Seo, 2013). McMillan과 Chavis(1986)는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을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갖고 개인 상호 간 혹은 집단과 관계되어 있다고 느끼며, 함께 하려는 헌신 또는 의지(commitment)를 통해 구성원들의 요구가 충족될 것이라는 공유된 믿음(McMillan, 1976)’이라고 정의하고, ‘구성원의 소속감 혹은 연대의식(Membership)’, ‘상호 영향(Influence)’, ‘통합과 요구충족(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정서적 연계(Emotional Connection)’ 등 4가지 하위개념을 제시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 참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Chavis와 Wandersman(1990)은 미국 내슈빌 주 웨이블리와 벨몬트 인근 주민 423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지역사

회 활동 참여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공동체의식이 직접 및 간접적으로 주민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정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환경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기전(mechanism)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중국일반사회조사(Chinese General Society Survey, CGSS) 자료를 활용해서 공동체의식과 지방 정치참여(투표 참여)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Xu 등(2010)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모두에서 공동체의식이 투표 참여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34개의 논문을 메타분석한 연구에서도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참여 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Talò, Mannarini, and Rochira, 2014). 국내에서는 Seo(2013)가 부산광역시 4개 동단위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참여와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는데,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체의식 높고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생단체에 참여하는 집단에서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Yang과 Kang(2008)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Glynn(1981), McMillan과 Chavis(1986)의 공동체의식 개념을 토대로 공동체의식이 주민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주민 참여의도는 높으나 실제 참여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외에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등이 있다(Kim, 2015).

우리 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단 기간 동안의 압축 성장으로 인한 급속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도시화 및 수도권으로 편향된 도시인구 집중 등으로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많이 약화되었고(Choi & Jeong, 2015; Chung, Song, Im, 2015), 이러한 현상은 도시지역에서 더욱 뚜렷하다(Choi & Jeong, 2015). 실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을 비교한 Xu 등(2008)의 연구에서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에 비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우 2000년대 초반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시작된 이래 많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주민 참여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et al., 2014; Lee,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참여와의 관련성을 측정해서 향후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7년 서울시 강동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한 강동구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 조사(Lee, Kim, Cho, & Kang, 2008)’ 일부를 분석한 단면연구(cross-sectional study)이다.

### 1. 건강한 강동구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 조사

#### 1) 조사 대상집단

조사 대상집단은 서울시 강동구의 5개 행정동단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800명으로, 비례확률표본추출(Proportionate Probability Sampling, PPS) 방식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세 단계를 거쳐서 표본을 추출하였다. 먼저 강동구의 20개 행정동 단위 지역사회 중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 참여전략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5개 동단위 지역사회에서 인구크기에 비례해서 통·반을 1차 표본단위로 무작위 추출한 다음, 주거형태(단독주택, 연립·빌라, 아파트 등) 등을 고려한 계통추출방법을 활용해서 가구를 선정하였다. 가구 내 응답자 추출은 동단위 지역사회별 인구 특성을 반영한 할당표를 작성해서 이를 기준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가구 방문시 조사대상자가 부재중인 경우 최소 3시간이 경과한 후 2회 재방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Lee et al., 2008).

#### 2) 조사내용 및 조사도구

조사내용은 크게 ‘건강관련 행태 및 영향요인’, ‘지역사회 참여행태와 영향요인’, ‘사회·경제적 배경’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 네 영역으로 이루어져있고, 구체적 측정변수(측정문항 및 측정척도)는 지역사회 역량관련 연구 및 World Bank(2001)의 Social Capital Assessment Tool, 영국

National Statistics(2002)의 Social Capital Questions Banks 등을 참조하여 Lee 등(2008)이 개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행태 관련 요인은 대부분 명목척도로 측정하였고, 지역사회 참여행태는 명목척도와 등간척도, 지역사회 참여행태 영향요인 및 사회·경제적 배경은 대부분 등간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사도구 개발과정에서 연구팀 및 사회조사 전문기관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서 역량지표 및 측정변수의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였고, 개발한 조사설문서는 조사 실시 전 예비조사를 거쳐서 수정·보완하였다(Lee et al.,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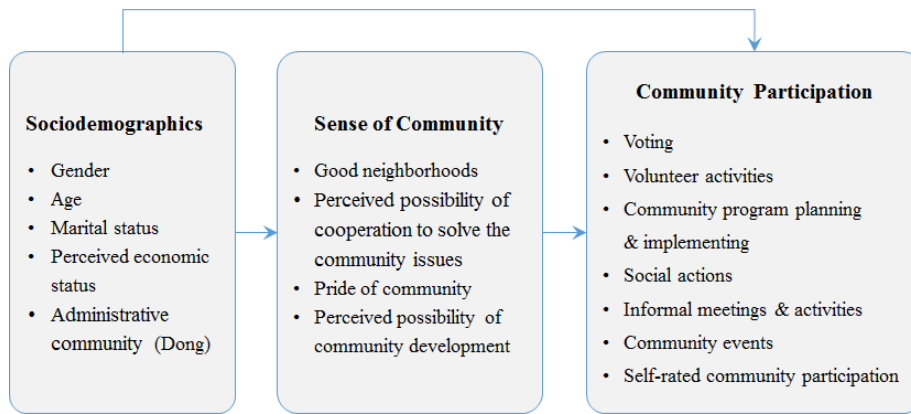
#### 3)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2007년 10월~12월 동안 사회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 리서치센터를 통해 구조화된 조사설문서를 활용해서 면접원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설문서 표지에 응답자에게 조사 참여에 대한 서명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동적 조사참여 동의를 구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해결 및 면접원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실시 전 조사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면접원 교육을 실시하였다(Lee et al., 2008).

## 2. 연구내용 및 측정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대도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인 수준에서의 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참여와의 관련성을 측정하기 위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참여를 동시에 측정한 단면조사연구로,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참여와의 관련성에 관한 여러 연구들(Chavis & Wandersman, 1990; Ohmer, 2007; Yang & Kang, 2008; Xu et al., 2010; Seo, 2013; Kim et al., 2014; Lee, 2014; Kim, 2015)을 살펴보면,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참여가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을 독립변수로, 지역사회 참여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을 측정하고자 하였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경제수준 및 거주지역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study

2) 조사내용 및 측정방법

(1)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은 크게 ‘좋은 이웃관계’,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가능성’, ‘지역사회 자긍심’ 및 ‘지역사회 발전가능성’ 등 4개의 하위개념으로 구성하였다. Lee 등(2008)은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을 ‘좋은 이웃관계’,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가능성’, ‘이웃에 대한 신뢰감’ 등 3개 하위개념으로 구성하였으나(Lee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내용타당도 및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 .567$ )가 낮은 하위개념인 ‘이웃에 대한 신뢰감’을 제외하였다. 대신 공동체의식에 관한 여러 연구들(Community Science; Lee, 2014; Ohmer, 2007)을 참조해서 Lee 등(2008)이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시각으로 조사한 ‘지역사회 자긍심’과 ‘지역사회 발전가능성’을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재구성한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을 직접 오블리민 회전방식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연구자가 의도한 대로 4개의 하위개념(‘좋은 이웃관계’,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가능성’, ‘지역사회 자긍심’, ‘지역사회 발전가능성’)으로 잘 분류되었고 각 하위개념별 Cronbach’s  $\alpha$ 는 0.764~0.843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한편 KMO(Kaiser-Meyer-Olkin)와 Bartlett 검정결과, KMO 값은 .901이었고, Bartlett 구형성 검정결과 유의수준 .000이었다. 요인분석시 KMO(Kaiser-Meyer-Olkin)와 Bartlett 검정을 통해 요인분석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KMO 값은 표본적합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0.5 이상이면 표본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고,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변수간의 상관행렬이 단위행렬(대각선이 1이고, 나머지

는 모두 0인 행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정방법으로 유의확률이 .05 미만인 경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하위개념의 구체적 측정문항 및 측정척도는 다음과 같다. ‘좋은 이웃관계’는 ‘이웃에 사는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지역사회 주민들은 서로 인사를 잘 주고받습니까?’,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잘 돕는 편입니까?’, ‘주민들은 단합을 잘 하고 친밀감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4문항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측정하였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가능성’은 ‘급수/쓰레기 처리문제’,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안전사고 예방’, ‘치안(안전) 문제’, ‘사회개발 문제’ 등의 문제 발생시 주민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할 가능성에 대해 각각 Likert 5점 척도(‘매우 낮다’ 1점, ‘다소 낮다’ 2점, ‘높지도 낮지도 않다’ 3점, ‘다소 높다’ 4점, ‘매우 높다’ 5점)로 측정하였다. ‘지역사회 자긍심’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와 ‘지역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의 2문항, ‘지역사회 발전가능성’은 ‘사회경제적 발전가능성’,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가능성’, ‘안전하며 서로 믿고 돕는 사회분위기 조성가능성’의 3문항에 대해 각각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측정하였다.

(2)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 참여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 참

여를 측정하기 위해 ‘건강한 강동구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조사’ 자료 중 Lee 등(2008)이 개인, 지역사회 및 사회 수준의 활동을 포함한 시민활동으로 측정한 ‘선거활동(투표 참여)’, ‘자원봉사활동 경험’, ‘지역사회 기관 및 조직의 사업기획과 수행과정 참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활동(Social action) 참여’, ‘지역사회 비공식적 모임 및 활동 참여정도’, ‘지역사회 행사 및 모임 참여정도’, 그리고 ‘전반적인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주관적 평가’ 등 7개 지표를 활용하였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 참여는 활동의 특성 및 유형에 따라 참여경험 유무 또는 참여정도로 측정하였다. ‘선거활동(투표)’,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 사업기획 및 수행’ 참여 등은 각각 1문항으로 경험유무를 ‘예/아니오’로 측정하였고, ‘사회활동’ 참여 경우는 구체적 활동(‘신문, 라디오, TV에 기고함’, ‘문제해결을 위해 적절한 기관에 접촉함’, ‘구(시)의원 또는 국회의원과 접촉함’, 지역사회 수준의 포럼 또는 공개회의 참석’, ‘거주자 또는 주민모임에 참석함’, ‘청원 준비를 도움’)에 대해서 각각의 경험유무를 ‘예/아니오’로 측정한 후, 한 가지 이상 활동에 참여한 경우 사회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지역사회 비공식적 모임 및 활동’은 ‘반사회’, ‘주민회의(주민대책위원회 등)’, ‘어머니회’ 등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해 Likert 5점 척도(‘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1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2점,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만 참여한다’, 3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4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점)로 측정하였고, ‘지역사회 행사 및 모임’ 경우도 ‘지역사회 전반적인 행사 및 모임(마을축제, 바자회, 문화행사 등)’과 ‘건강관련 행사 및 모임(건강축제 및 캠페인, 건강마라톤, 걷기대회, 건강강좌, 건강관련 자조모임 등)’ 등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해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측정하였다. 반면, ‘전반적인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 10점 척도(‘전혀 참여하지 않음’ 1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10점)로 측정한 후, 5점 기준으로 환산하였다. ‘지역사회 비공식적 모임 및 활동 참여정도’와 ‘지역사회 행사 참여정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각각 0.824, 0.860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첫째,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고, 공동체의식의 하위개념(‘좋은 이웃관계’, ‘지역사회 문제해결 협력가능성’, ‘지역사회 자긍심’, ‘지역사회 발전가능성’)과 ‘비공식적 모임 및 활동 참여정도’와 ‘지역사회 행사 참여정도’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각 문항별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해서 문항별 응답분포와 가능한 경우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행정동단위 지역사회별로 비교하기 위해  $\chi^2$ -test를 시행하였고, 동단위 지역사회를 포함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공동체의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 및 ANOVA를 시행하였다. 다섯째, 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참여와의 관련성을 측정하기 위해, 지역사회 활동 참여(경험) 유무와의 관련성은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정도의 관련성은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같은 관련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연구 대상집단

본 연구의 대상집단은 ‘건강한 강동구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 조사’에 참여한 성인남녀 1,800명으로, 대상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성별은 남자 50.1%, 여자 49.9%로 비슷하였고, 연령은 40대가 29.2%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이상은 7.5% 정도로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77.9%, 미혼 20.9%이었고, 별거/이혼/사별은 1.2%이었다. 교육수준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51.7%, 대졸이상이 43.3%로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대부분이었으나, E동 경우 아파트는 3.4%에 불과하고 단독주택(51.0%)과 다세대주택(30.7%)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전반적으로 생활에 별 어려움 없는 경우(보통)가 56.9%로 가장 많았다. 한편, 연령, 주거형태, 교육수준 및 주관적 경제수준 등은 행정동단위 지역사회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1> Sample sociodemographics

Variables	Administrative community (Dong)						p-value	
	Total (N=1,800)	A-Dong (n=522)	B-Dong (n=340)	C-Dong (n=355)	D-Dong (n=293)	E-Dong (n=290)		
Gender (%)	Male	50.1	50.2	49.7	49.9	49.5	51.4	.992*
	Female	49.9	49.8	50.3	50.1	50.5	48.6	
Age (%), Mean	20s	22.4	21.6	25.6	19.2	20.8	25.9	.001*
	30s	22.6	22.0	12.4	24.8	30.0	25.5	
	40s	29.2	30.7	33.5	34.1	23.5	21.4	
	50s	18.2	18.2	22.9	15.5	17.4	16.9	
	60s	7.5	7.5	5.6	6.5	8.2	10.3	
	Average	41.0	41.1	41.7	40.5	40.8	40.9	
Marital status (%)	Not married	20.9	18.6	23.5	18.3	21.8	24.1	.399*
	Married	77.9	80.3	75.9	80.3	76.5	74.8	
	separated/divorced	1.2	1.1	.6	1.4	1.7	1.0	
Education (%)	No education/Primary school	1.0	1.2	1.5	.9	.7	.7	.000*
	Middle school	3.9	3.8	2.1	4.5	4.1	5.2	
	High school	51.8	58.9	38.8	55.7	33.8	67.6	
	College/Graduate school	43.3	36.1	57.6	38.9	61.4	26.6	
	Type of residence (%)	Apartment	83.6	99.0	98.8	98.6	99.3	
Detached house	8.8	.8	.6	.8	.3	51.0		
Multiplex house	5.1	.2	.3	.3	.0	30.7		
Town house	2.5	.0	.0	.3	.3	14.8		
Other type	.1	.0	.3	.0	.0	.0		
Perceived economic status (%)	Lower	2.2	4.0	.3	3.7	.3	1.4	.000*
	Lower middle	23.8	23.1	21.2	28.9	16.7	29.4	
	Middle	56.9	59.2	50.9	52.1	57.7	65.1	
	Upper middle	16.7	13.5	26.2	15.3	25.3	4.2	
	Upper	.3	.2	1.5	.0	.0	.0	

\* p-value by  $\chi^2$ -test, <sup>†</sup> p-value by ANOVA

## 2.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조사대상집단의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은 5점 기준에 평균 3.20점이었다. 하위개념별로는 ‘지역사회 발전가능성’이 5점 기준에 평균 3.45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가능성’ 3.31점, ‘지역사회 자긍심’ 3.24점 순이었으며 ‘좋은 이웃관계’는 5점 기준에 2.85점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행정동단위 지역사회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별거/이혼/사별인 경우가 미혼이나 결혼한 경우보다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행정동단위 지역사회별로는 전반적으로 B동에서 가장 높은 반면, ‘좋은 이웃관계’ 경우는 E동에서 가장 높았다<Table 2>.

## 3.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는 활동의 특성 및 유형에 따라 참여경험 유무 및 참여정도로 측정하였는데, 먼저 ‘선거활동(투표)’,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 사업기획 및 수행’,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활동’ 등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경험을 살펴보면, 조사 당시 가장 최근(2006년)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시 투표 참여경험은 48.0% 이었고,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은 10.2%, 지역사회 사업기획 및 수행 참여경험은 3.9%이었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활동 경우 한 가지 이상의 활동에 참여한 경우는 8%로 낮았고, 구체적 활동별로도 ‘거주자 및 지역주민 모임’ 참석경험을 제외하고 대부분 1~2% 수준으로 상당히 낮았다. 이 같은 지역사회 활동 참여경험은 행정동단위 지

역사회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B동에서 거의 모든 지역사회 활동 참

여율이 높았고,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낮은 E동에서 지역사회 활동 참여율이 가장 낮았다<Table 3>.

<Table 2> Sense of community by sociodemographics

Unit: Mean (SD)

Variables		SoC (Total)	SoC (1) Good neighborhoods	SoC (2) Possibility of Cooperation	SoC (3) Pride of community	SoC (4) Possibility of development
Gender <sup>a</sup>	Male	3.15(.42)	2.72(.64)	3.31(.61)	3.21(.63)	3.44(.59)
	Female	3.24(.46) <sup>***</sup>	2.97(.66) <sup>***</sup>	3.31(.62)	3.26(.62)	3.47(.64)
Age	20s	3.07(.41) <sup>a)bc)***</sup>	2.50(.63) <sup>a)-d)***</sup>	3.28(.60)	3.16(.58) <sup>a)bc)***</sup>	3.42(.55)
	30s	3.15(.45) <sup>d)ef)***</sup>	2.81(.63) <sup>a)ef)g)***</sup>	3.26(.62)	3.15(.62) <sup>c)d)***</sup>	3.42(.64)
	40s	3.26(.44) <sup>a)d)***</sup>	2.96(.66) <sup>b)e)***</sup>	3.34(.61)	3.30(.66) <sup>a)c)***</sup>	3.52(.62)
	50s	3.27(.45) <sup>b)e)***</sup>	3.04(.61) <sup>c)f)***</sup>	3.34(.63)	3.31(.60) <sup>b)d)***</sup>	3.44(.63)
	60s	3.30(.43) <sup>c)f)***</sup>	3.08(.63) <sup>d)g)***</sup>	3.37(.58)	3.30(.60)	3.45(.63)
Marital status	Not married	3.07(.42) <sup>a)bc)***</sup>	2.47(.61) <sup>a)bc)***</sup>	3.29(.60)	3.15(.58)a)	3.43(.55)
	Married	3.23(.45) <sup>a)***</sup>	2.94(.64) <sup>a)c)***</sup>	3.31(.61)	3.26(.64)a)	3.46(.63)
	separated/divorced	3.39(.38) <sup>b)***</sup>	3.29(.44) <sup>b)c)***</sup>	3.47(.50)	3.26(.54)	3.51(.66)
Education	No education/Primary school	3.30(.43)	3.14(.56)	3.30(.75)	3.36(.84)	3.46(.59)
	Middle school	3.19(.40)	3.03(.62) <sup>a)***</sup>	3.22(.61)	3.19(.58)	3.39(.52)
	High school	3.19(.45)	2.89(.68) <sup>b)***</sup>	3.29(.61)	3.22(.60)	3.40(.60) <sup>a)***</sup>
	College/Graduate school	3.21(.45)	2.77(.64) <sup>a)bc)***</sup>	3.34(.61)	3.26(.65)	3.53(.63) <sup>a)***</sup>
Type of residence	Detached house	3.09(.44) <sup>a)***</sup>	2.96(.59)	3.14(.63) <sup>a)bc)***</sup>	2.98(.53) <sup>a)***</sup>	3.27(.57) <sup>a)bc)***</sup>
	Apartment	3.21(.45) <sup>a)***</sup>	2.83(.67)	3.32(.60) <sup>a)***</sup>	3.28(.63) <sup>a)bc)***</sup>	3.47(.62) <sup>a)***</sup>
	Multiplex/Town house	3.20(.43)	2.92(.60)	3.32(.63) <sup>b)***</sup>	3.08(.57) <sup>b)***</sup>	3.45(.57) <sup>b)***</sup>
Perceived economic status	Lower	3.19(.54)	2.98(.68)	3.20(.74)	3.13(.69)	3.52(.68)
	Lower middle	3.16(.45) <sup>a)***</sup>	2.92(.66)	3.20(.60) <sup>a)bc)***</sup>	3.18(.61) <sup>a)***</sup>	3.41(.62) <sup>a)***</sup>
	Middle	3.19(.45)	2.83(.63)	3.32(.63) <sup>a)***</sup>	3.22(.59) <sup>b)***</sup>	3.45(.61)
	More than Upper middle	3.27(.41) <sup>a)***</sup>	2.79(.75)	3.43(.52) <sup>b)***</sup>	3.40(.71) <sup>a)bc)***</sup>	3.54(.59) <sup>a)***</sup>
Administrative community (Dong)	A-Dong	3.18(.44) <sup>a)***</sup>	2.83(.66)	3.32(.61)	3.19(.62) <sup>a)bc)***</sup>	3.41(.66) <sup>a)***</sup>
	B-Dong	3.29(.43) <sup>a)bc)***</sup>	2.84(.68)	3.43(.63) <sup>a)bc)***</sup>	3.40(.61) <sup>a)c)***</sup>	3.57(.60) <sup>a)bc)***</sup>
	C-Dong	3.15(.45) <sup>b)***</sup>	2.78(.70) <sup>a)***</sup>	3.21(.53) <sup>a)***</sup>	3.28(.65) <sup>d)***</sup>	3.45(.64)
	D-Dong	3.21(.46)	2.86(.70)	3.31(.53)	3.29(.63) <sup>e)***</sup>	3.48(.56)
	E-Dong	3.16(.44)	2.95(.59) <sup>a)***</sup>	3.25(.65) <sup>b)***</sup>	3.03(.54) <sup>b)-c)***</sup>	3.37(.57) <sup>b)***</sup>
Total	Mean	3.20(.45)	2.85(.66)	3.31(.61)	3.24(.63)	3.45(.61)
	Minimum	1.00	1.00	1.00	1.00	1.00
	Maximum	5.00	5.00	5.00	5.00	5.00

Note: *p*-value by t-test or ANOVA (post hoc: scheffe, a)-g): difference between groups), \* *p* < .05, \*\* *p* < .01, \*\*\* *p* < .001, SoC : Sense of Community

‘비공식적 모임 및 활동’, ‘지역사회 행사’ 및 ‘전반적인 지역사회 참여’ 등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정도는 5점 기준에 ‘비공식적 모임 및 활동’이 평균 1.84점, ‘지역사회 행사 참여’ 2.38점, ‘전반적인 지역사회 참여’ 2.26점으로 전반적으로 참여정도가 낮았다. 비공식적 모임 및 활동 경우, ‘반상회’ 참여정도가 5점 기준에 평균 2.1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주민회의(주민대책위원회 등)’ 및 ‘어머니회’ 참여정도는 5점 기준에 각각 1.80점, 1.60점으로 상당히 낮았다. 지역사회 행

사 및 모임 참여정도는 마을축제, 바자회, 문화행사, 주민모임 등의 ‘전반적인 지역사회 행사 및 모임’ 참여정도가 5점 기준에 평균 2.48점이었고, 건강축제, 건강캠페인, 건강 마라톤, 걷기대회, 건강강좌, 어려운 이웃이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모임, 건강관련 자조모임 등의 ‘건강관련 행사 및 모임’ 참여정도는 2.29점이었다. 한편, 지역사회 활동 참여정도 경우 ‘지역사회 전반적 행사 및 모임’을 제외하고 행정동단위 지역사회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Table 3> Community participation by administrative community (Dong)

	Administrative community (Dong)						p-value *
	Total (N=1,800)	A-Dong (n=522)	B-Dong (n=340)	C-Dong (n=355)	D-Dong (n=293)	E-Dong (n=290)	
Voting in a local government election, n(%)	864(48.0)	236(45.3)	216(63.5)	168(47.3)	140(47.8)	104(35.9)	.000
Volunteer activities, n(%)	184(10.2)	23(4.4)	67(19.7)	41(11.5)	40(13.7)	13(4.5)	.000
Community program planning and implementing	71(3.9)	12(2.3)	29(8.5)	7(2.0)	20(6.8)	3(1.0)	.000
Social actions <sup>a)</sup> , n(%)	144(8.0)	46(8.8)	38(11.2)	31(8.7)	25(8.5)	4(1.4)	.000
Alerted newspaper, radio or TV to a local problem	25(1.4)	4(.8)	11(3.2)	6(1.7)	3(1.0)	1(.3)	.013
Contacted the appropriate organisation to deal with the problem, e.g. the council	36(2.0)	7(1.3)	13(3.8)	13(3.7)	2(.7)	1(.3)	.001
Met with a politician, called him/her, or sent a letter	18(1.0)	3(.6)	4(1.2)	6(1.7)	5(1.7)	0(.0)	.127
Attended public hearing, or public discussion group	24(1.3)	7(1.3)	8(2.4)	5(1.4)	3(1.0)	1(.3)	.280
Attended a neighborhood/village council meeting	96(5.3)	38(7.3)	23(6.8)	15(4.2)	19(6.5)	1(.3)	.000
Attended a protest meeting or joined a action group	9(.5)	1(.02)	6(1.8)	1(.3)	0(.0)	1(.3)	.008
Helped organize a petition on a local issue	31(1.7)	17(3.3)	7(2.1)	3(.8)	3(1.0)	1(.3)	.010
Informal meetings or activities, Mean(SD)	1.84(.95)	1.82(.93)	2.00(1.00)	1.67(.89)	2.11(1.08)	1.61(.71)	.000
Neighborhood meetings <sup>†</sup>	2.11(1.24)	2.08(1.24)	2.31(1.29)	1.88(1.18)	2.38(1.32)	1.96(1.06)	.000
Village council meetings <sup>†</sup>	1.80(1.06)	1.82(1.09)	1.97(1.07)	1.65(1.03)	2.08(1.18)	1.49(.78)	.000
Mother's association <sup>†</sup>	1.60(.99)	1.55(.95)	1.73(1.09)	1.48(.89)	1.86(1.16)	1.38(.77)	.000
Community events, Mean(SD)	2.38(.91)	2.46(.92)	2.26(.93)	2.22(.87)	2.60(.90)	2.38(.84)	.079
General events <sup>b)</sup> , <sup>‡</sup>	2.48(.98)	2.54(.99)	2.30(1.01)	2.38(.99)	2.68(.94)	2.49(.94)	.274
Health-related events <sup>c)</sup> , <sup>‡</sup>	2.29(.95)	2.38(.99)	2.21(.99)	2.05(.87)	2.53(.97)	2.28(.84)	.000
Self-rated community participation <sup>§</sup> , Mean(SD)	2.26(1.20)	2.52(1.18)	2.08(1.17)	2.08(1.21)	2.51(1.24)	1.96(1.07)	.000

\* p-value by  $\chi^2$ -test, ANOVA

a) As measured if he or she have participated in one or more activities in the following seven activities

b) village festival, bazaar, culture event, residents' meetings etc.

c) health fairs, health campaigns, health marathon, walkathon, health Education lectures, self-help groups, etc.

<sup>†</sup> by using 5-point Likert scales (1: never participate, 2: rarely participate 3: participate in cases related with me, 4: try to participate, 5: actively participate)

<sup>‡</sup> by using 5-point Likert scales (1: never, 2: almost not actively 3: moderately, 4: actively, 5: very actively)

<sup>§</sup> Converted 10-point scale into 5-point scale after measured by using 10-point Likert scales (1: never, 10: very active)

### 3. 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참여와의 관련성

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참여와의 관련성을 측정하기 위해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활동 특성 및 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하위개념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된 후에도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4>.

먼저 '선거활동', '자원봉사활동' 및 '사회활동' 등 지역사회 활동 참여경험과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하위개념 중 '좋은 이웃관계'와 '지역사회 발전가능성'이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사회 문제해결 협력가능성'과 '지역사회 자긍심'은 영향을 미치는 않았다. '지역사회 사업기획 및 수행' 참여경험 경우에는 '좋은 이웃관계'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행정동단위 지역사회 역시 지역사회 활동 참여경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자원봉사활동'과 '지역사회 사업기획 및 수행' 참여경험이 높고, 남성과 비교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선



거활동(투표) 참여경험이 높았다. 결혼한 경우 미혼에 비해 ‘선거활동(투표)’ 및 ‘사회활동’ 참여경험은 높은 반면,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은 낮았고, 주관적 경제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오히려 지역사회 활동, 특히 사회활동 참여경험이 높았다. 그리고 E동에서 다른 행정동단위 지역사회에 비해 모든 지역사회 활동 참여경험이 유의하게 낮았다<Table 4>.

‘비공식적 모임 및 활동’, ‘지역사회 행사’ 및 ‘전반적인 지역사회 활동’ 등 지역사회 활동 참여정도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과의 관련성 경우는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하위개념 중 ‘좋은 이웃관계’, ‘지역사회 문제해결 협력가능성’ 및 ‘지역사회 자긍심’이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난 반면, ‘지역사회 발전가능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의 특성 및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한 경우,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 지역사회 활동 참여정도가 높았고, E동에서 다른 행정동단위 지역사회보다 비공식적 모임 및 활동과 전반적인 지역사회 참여 등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정도가 낮았다. 지역사회 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의 설명력은 비공식적 모임 및 활동 참여정도가 28%( $R_{adj}^2=.285$ )이었고, 지역사회 행사 및 전반적인 지역사회 활동 참여정도는 약 16%( $R_{adj}^2=.164$ ,  $R_{adj}^2=.168$ ) 정도이었다<Table 4>.

<Table 4> The association of sense of community with community participation in community actions or activities

	Voting <sup>†</sup>		Volunteer activities <sup>†</sup>		Community program planning & implementing <sup>†</sup>		Social actions <sup>†</sup>		Informal meetings or activities <sup>‡</sup>		Community events <sup>‡</sup>		Self-rated community participation <sup>‡</sup>	
	EXP(B)	95%CI	EXP(B)	95%CI	EXP(B)	95%CI	EXP(B)	95%CI	β	t	β	t	β	t
Gender <sup>a)</sup>	1.263 <sup>*</sup>	1.03-1.55	.399 <sup>***</sup>	.28-0.57	.328 <sup>***</sup>	.18-.59	.917	.68-1.42	-.213 <sup>***</sup>	-10.226	-.032	-1.452	-.079 <sup>***</sup>	-3.509
Age	1.022 <sup>***</sup>	1.01-1.03	1.005	.99-1.03	1.016	.99-1.05	1.000	.98-1.02	.046	1.663	.037	1.245	.003	1.09
Marital status <sup>b)</sup>														
Married	1.845 <sup>**</sup>	1.30-2.61	.521 <sup>*</sup>	.30-0.91	1.412	.50-4.01	2.692 <sup>*</sup>	1.24-5.84	.143 <sup>***</sup>	5.047	.071 <sup>*</sup>	2.326	.047	1.556
separated/divorced	2.719	.93-7.94	.292	.05-1.63	.000	.00-	2.667	.54-13.2	-.038	-1.695	-.019	-.781	-.023	-.976
Economic status <sup>c)</sup>														
Lower middle	.463 <sup>*</sup>	.22-.97	.624	.22-1.80	.279	.07-1.12	.160 <sup>***</sup>	.07-.34	-.281 <sup>***</sup>	-4.621	-.176 <sup>**</sup>	-2.706	-.160 <sup>*</sup>	-2.451
Middle	.533	.26-1.10	.553	.20-1.56	.323	.09-1.21	.107 <sup>***</sup>	.05-.23	-.367 <sup>***</sup>	-5.309	-.255 <sup>**</sup>	-3.438	-.212 <sup>**</sup>	-2.847
Upper middle <sup>+</sup>	.553	.26-1.18	.435	.15-1.30	.206 <sup>*</sup>	.05-0.87	.108 <sup>***</sup>	.05-.25	-.291 <sup>***</sup>	-5.286	-.176 <sup>**</sup>	-2.978	-.200 <sup>**</sup>	-3.364
Administrative community <sup>d)</sup>														
A-Dong	1.557 <sup>**</sup>	1.13-2.14	.963	.47-1.97	2.073	.57-7.59	6.721 <sup>***</sup>	2.35-19.2	.088 <sup>**</sup>	3.055	.031	1.008	.209 <sup>***</sup>	6.573
B-Dong	3.550 <sup>***</sup>	2.47-5.01	5.092 <sup>***</sup>	2.67-9.72	9.063 <sup>***</sup>	2.63-31.2	10.311 <sup>***</sup>	3.54-30.1	.151 <sup>***</sup>	5.459	-.074 <sup>*</sup>	-2.495	.035	1.182
C-Dong	1.797 <sup>**</sup>	1.27-2.54	2.895 <sup>**</sup>	1.49-5.66	2.006	.50-8.01	6.551 <sup>**</sup>	2.23-19.2	.027	.989	-.070 <sup>*</sup>	-2.368	.055	1.861
D-Dong	1.746 <sup>**</sup>	1.22-2.51	3.492 <sup>***</sup>	1.78-6.86	7.774 <sup>**</sup>	2.21-27.3	7.694 <sup>***</sup>	2.58-22.9	.197 <sup>***</sup>	7.363	.086 <sup>**</sup>	2.999	.177 <sup>***</sup>	6.167
Sense of community														
Good neighborhoods	1.786 <sup>***</sup>	1.50-2.13	1.789 <sup>***</sup>	1.35-2.38	2.093 <sup>**</sup>	1.35-3.25	1.618 <sup>**</sup>	1.19-2.20	.227 <sup>***</sup>	9.859	.236 <sup>***</sup>	9.550	.214 <sup>***</sup>	8.628
Possibility of cooperation	1.047	.86-1.27	.939	.69-1.27	1.017	.64-1.61	.922	.66-1.29	.104 <sup>***</sup>	4.450	.106 <sup>***</sup>	4.201	.139 <sup>***</sup>	5.515
Pride of community	.856	.71-1.04	1.281	.93-1.76	1.002	.61-1.65	.991	.70-1.40	.061 <sup>*</sup>	2.564	.105 <sup>***</sup>	4.116	.096 <sup>***</sup>	3.727
Possibility of development	1.708 <sup>***</sup>	1.41-2.07	1.742 <sup>**</sup>	1.27-2.39	1.617	.99-2.63	1.658 <sup>**</sup>	1.18-2.33	.036	1.552	-.010	-.413	-.051 <sup>*</sup>	-2.206
	Nagelkerke R <sup>2</sup> =.191		Nagelkerke R <sup>2</sup> =.180		Nagelkerke R <sup>2</sup> =.191		Nagelkerke R <sup>2</sup> =.142		Adjusted R <sup>2</sup> =.275		Adjusted R <sup>2</sup> =.164		Adjusted R <sup>2</sup> =.160	
	-2 Log likelihood=		-2 Log likelihood=		-2 Log likelihood=		-2 Log likelihood=		F=46.402		F=24.414		F=23.718	
	2207.450		1018.795		497.749		890.275							

Note. reference group : a) female, b) not married, c) lower, d) E-Dong

<sup>†</sup> by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Hosmer-Lemeshow Test - Voting :  $\chi^2=9.307$ ,  $p=.317$ , Volunteer activities :  $\chi^2=6.144$ ,  $p=.631$ , Community program planning & implementing :  $\chi^2=15.325$ ,  $p=.053$ , Social actions:  $\chi^2=3.843$ ,  $p=.871$

<sup>‡</sup> by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 < .05, \*\* p < .01, \*\*\* p < .001

## IV. 논의

조사대상집단의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을 측정된 결과, 5점 기준에 평균 3.20점으로 높지 않았는데, 이는 국내 다른 연구에서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높지 않은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Yang & Kang, 2008; Kim et al., 2014; Lee, 2014).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하위개념 중 ‘지역사회 발전 가능성’이 5점 기준에 평균 3.4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좋은 이웃관계’는 평균 2.85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도시지역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참여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Kim 등(20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Kim 등(2014)은 공동체의식을 ‘연대감’, ‘충족감’ 및 ‘유대감’ 등의 하위개념으로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의 ‘좋은 이웃관계’와 유사한 개념인 ‘유대감’이 5점 기준에 평균 2.99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두 연구 모두 대도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이 같은 결과에는 대도시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은 하위개념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인 경우보다 결혼하였거나 별거/이혼/사별한 경우,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인구사회학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Xu 등(2010)의 연구에서 ‘남성’, ‘미혼’, ‘가구소득’ 및 ‘교육수준’은 공동체의식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연령’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Xu et al., 2008). 그러나 성 및 연령, 교육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Ohmer, 2007; Yang & Kang, 2008). 한편,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은 행정동단위 지역사회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좋은 이웃관계’를 제외한 공동체의식이 B동에서 가장 높고, 다른 2개의 행정동(C동, E동)에서 가장 낮았으며, 나머지 행정동(A동, D동)은 중간에 속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Lee 등(2008)이 5개 행정동단위 지역사회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군집분석 결과 분류된 지역사회 특성과 유사하다. 즉,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높은 B동은 ‘교육수준과 아파트 비율이 비교적 높고, 도시형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중산층 복합

지역’,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낮은 E동은 ‘시장이 있고 도시형 산업도 활성화되어 있으며 교육수준과 아파트 비율은 비교적 낮은 시장 지역’, 나머지 3개 동(A, C, D동)은 ‘교육수준과 아파트 주택 비율은 높지만 도시형 산업은 발달해 있지 않은 중산층 주거지역’으로 분류되었는데, 같은 군집에 속하는 지역사회별로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수준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C동 경우 비슷한 특성을 가진 다른 두 지역사회(A동과 D동)보다 공동체의식이 낮게 나타난 것은 C동이 다른 동단위 지역사회에 비해 소득계층 간 차이가 비교적 큰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한편, 전반적으로 공동체의식이 낮은 E동에서 ‘좋은 이웃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E동 경우 C동과 마찬가지로 저소득계층이 많으나 중산층이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있고, 다른 지역사회에 비해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사 당시 가장 최근(2006년)에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투표 참여율은 45.3%로, 이는 당시 우리나라 전국 지방선거 투표 참여율(51.6%) 및 2014년 지방선거 투표 참여율(56.8%) 보다 낮은 수준이다(Statistics Korea, 2015).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0.2%) 경우 2007년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9.4%)보다는 높은 수준이나(Statistics Korea, 2008), 2015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8.2%)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Statistics Korea, 2016).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조직 및 기관의 사업기획 및 수행 참여경험과 사회활동 경험은 각각 3.9%, 8.0%로 역시 낮은 수준이었고, 비공식적 모임 및 활동과 지역사회 행사 및 모임 참여정도, 그리고 전반적인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주관적 평가 역시 5점 기준에 평균 3점 미만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 및 조직차원에서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일부 이루어져 왔으나 그러한 노력들이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사회를 건강한 지역사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개인 수준에서 건강생활 실천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 수준에서 다양한 활동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참여와의 관련성을 측정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든 지역사회 활동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된 후에도 지역사회 공동

체의식이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활동(투표)’, ‘자원봉사활동’, ‘사회활동’ 참여 경험에는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하위개념 중 ‘좋은 이웃관계’와 ‘지역사회 발전가능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사회 사업기획 및 수행’ 참여경험 경우 ‘좋은 이웃관계’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그리고 ‘비공식적 모임 및 활동’, ‘지역사회 행사 및 모임’, ‘전반적인 지역사회 활동’ 참여정도에는 ‘좋은 이웃관계’, ‘지역사회 문제해결 협력가능성’ 및 ‘지역사회 자긍심’이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 중 ‘좋은 이웃관계( $\beta=.227, 236, 214$ )’의 영향력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 협력가능성( $\beta=.104, 106, 139$ )’, ‘지역사회 자긍심( $\beta=.061, .105, .096$ )’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반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중 ‘지역사회 발전가능성’ 경우 지역사회 활동 참여경험에서와는 달리 지역사회 활동 참여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지역사회 활동 특성 및 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하위개념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메타분석을 시행한 Talò 등(2014)의 연구에서 참여유형에 상관없이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참여와의 관련성이 유의하다는 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이다(Talò et al., 2014). 한편, 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참여와의 관련성에 관한 여러 경험적 연구들을 보면,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참여가 상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는데(Chavis & Wandersman, 1990; Ohmer, 2007; Yang & Kang, 2008; Xu et al., 2010; Seo, 2013; Kim et al., 2014; Lee, 2014; Kim, 2015), 실제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이론적 접근에서는 두 변수 간에 순환관계가 존재함을 가정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은 활발한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고, 활발한 지역사회 참여는 다시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선순환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Talò et al., 2014).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 대도시 지역에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은 지역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므로(Xu, Perkins, & Chos, 2010; Kim et al., 2014; Lee, 2014) 동 단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함께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등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특히 본 연구에서 모든 지역사회 활동 유형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좋은 이웃관계’ 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지역의 행정동단위 주민자치센터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폐쇄될 위기에 처한 보건진료소를 주민들의 청원으로 지역사회 커뮤니티(주민소통) 공간으로 새롭게 바꾸면서 과거 보건진료소의 주요 기능이었던 진료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Korea Healthy Cities Partnership and Siheung, 2015). 그리고 본 연구에서 주민들의 ‘지역사회 발전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 특히, ‘선거활동(투표)’,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 사업기획 및 수행’, ‘사회활동’ 등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들은 지역의 비전 혹은 발전계획 등을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서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한다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함께 지역사회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우선,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하위개념 중 일부 문항의 내용 타당도 및 신뢰도가 낮아서 ‘이웃 주민 간 신뢰도’를 제외하였는데, ‘이웃 주민 간 신뢰도’는 공동체의식을 구성하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향후 문항을 수정·보완해서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측정도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2007년에 조사한 자료로서,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 참여 수준이 현재 시점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을 재조사해서 그 동안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일개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이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대도시 지역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다소 제한적이거나, 대도시 지역의 5개 동 단위 지역사회에서 대표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조사대상 지역사회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끝으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동시에 측정된 단면조사연구로서 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참여 간의 관련성을 측정할 수는 있으나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측정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제한점이 있으나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도시 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개인, 지역사회 및 사회 수준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조사해서 그 관련성을 측정된 연구로서 향후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V.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 강동구의 5개 행정동단위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와의 관련성을 측정된 단면조사연구이다. 활동의 특성 및 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하위개념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영향력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행정동단위 지역사회 특성을 통제된 후에도 유의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때, 우리나라 대도시 지역에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지역사회 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함께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전국 수준 혹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조사나 사회지표 조사내용에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및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을 포함해서 조사한다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및 지역사회 참여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Anderson, M. R. (2010). Community psychology,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Political Psychology, 31*(1), 59-84. doi:10.1111/j.1467-9221.2009.00734.x.
- Chavis, D. M., & Wandersman, A. (1990). A Sense of community in the urban environment: A catalyst for particip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1), 55-81.
- Choi, M. H., & Jeong, M. G. (2015). The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on citizen participati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9*(2), 273-306.
- Chung, S. K., Song, D. B., & Im, H. J. (2015). The relations on sense of community and local community. *Journal of Regional Studies, 23*(4), 103-121.
- Community Science. (n.d.) *Sense of community index 2(SCI-2): Background, instrument, and scoring instructions*. Retrieved from <http://www.communityscience.com>
- Foster-Fishman, P. G., Cantillon, D., Pierce, S. J., & Van Egeren, L. A. (2007). Building an active citizenry: the role of neighborhood problems, readiness, and capacity forchang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39*, 91-106. DOI10.1007/s10464 -007-9097-0.
- Hawe, P., King, L., Noort, M., Jordens, C., & Lloyd, B. (2000). *Indicators to Help with Capacity Building in Health Promotion: Better Health Good Health Care*. North Sydney, Australia: NSW Health Department. Retrieved from <http://www.health.nsw.gov.au>.
- Kim, J. R., Jeong, B. K., Park, K. S., & Kang, Y. S. (2012). The associations of empowerment & social capital with self-rated health in communities with poor health.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37*(3), 131-137. oi:10.5393/JAMCH.2012.37.3.13.
- Kim, K. H., Kim, H. J., Seomun, J. H., Shin, H. S., & Song, J. W. (2014). A study on the effect to the community participation of the middle-aged: Focused on the sense of community and perception of living environment.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50*, 53-81.
- Kim, S. H. (2015). Adolescents' volunteering activities and sense of community: A panel data analysis using two-way fixed effects models. *Studies on Korean Youth, 26*(2), 237-259.
- Korea Healthy Cities Partnership (KHCP) and Siheung (2015). *Proceedings of the 9<sup>th</sup> KHCP general assembly and conference*. Siheung-si. ABC Happy Learning Town, Gyeonggi-do.
- Labonte, R., Georgia, B. W., Chad, K., & Laverack, G.(2002). Community capacity building : A parallel track for health promotion programs.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3), 181-182.
- Laverack, G., & Labonte, R. (2000). A planning framework for community empowerment goals within health promotion. *Health Policy and Planning, 15*(3), 255-262.

- Lee, M. S., Kim, J. R., Cho, C. H., & Kang, M. J. (2008). *Report on building community capacity and strengthening community actions for health promotion in urban areas of Korea in collaboration with local community centers & councils*, Suwon, Gyeonggi-Do: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Lee, M. S., Kang, M. J., Choi, K. S., & Cho, M. J. (2011). *Report on building community capacity and strengthening community actions for Healthy GangdongCommunities (HGC): Community-based metabolic syndrome control*. Suwon, Gyeonggi-Do: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Lee, Y. W. (2014). A study on the effects of a sense of local community on the patterns of the use of local media, SNS, and th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cluding the local community activities.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18(1), 197-220.
- Lovell, S. A., Kearns, R. A., & Rosenberg, M. W. (2011). Community capacity building in practice: Constructing its meaning and relevance to health promoters. *Health and Social care*, 19(5), 531-540.
- McMillan, D., & Chavis, D.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 Maclellan-Wright, M. C., Anderson, D., Barber, S., Smith, N., Cantin, B., Flex, R., & Raine, K. (2007). The development of measures of community capacity for community-based funding programs in Canada.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22(4), 299-306.
- Ohmer, M. L. (2007). Citizen participation in neighborhood organizational and its relationship to volunteers' self- and collective efficacy and sense of community. *Social Work Research*, 31(2), 109-120.
- Seo, J. H. (2013). A study on the participation of local autonomous activities and sense of community: Based on survey of citizens who are living in the boundary of 4 community centers in Busan Metropolitan city.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4(2), 437-459.
- Statistics Korea. (2008). "2007 Social Indicators in Korea". *The Statistics Korea press release*.
- Statistics Korea. (2015). "2014 Social Indicators in Korea". *The Statistics Korea press release*.
- Statistics Korea. (2016). "2015 Social Indicators in Korea". *The Statistics Korea press release*.
- Talò, C., Mannarini, T., & Rochira, A. (2014). Sense of community and community participation: A meta-analytic review.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7, 1-28.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8). *The Ottawa Charter*. The 1st Global Conference on Health Promotion, Ottawa, 21 November 1986.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 *The Bangkok Charter*. The 6th Global Conference on Health Promotion. Thailand, 7-11 August 2005.
- Xu, Q., Perkins, D. D., & Chow, J. C. (2010). Sense of community, neighboring, and social capital as predictors of local political participation in China.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5, 259-271.
- Yang, D. S., & Kang, Y. S. (2008). A study on the effects of local sense of community on the resident participation in Jeju. *Journal of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20(1), 71-89.